

•서평•

## 『우리 학문의 길』

(조동일 지음, 지식산업사, 1993)

최종덕

연세대 강사

조동일의 『우리 학문의 길』이라는 책이 지난 여름 서점에 나오면서 대학과 그 주변에서 학문을 업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 책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상황 속에서 학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분과 학문에 얽매어 학문의 총체적 연계성 내지는 학문 자체의 위상에 대하여 한 번도 논의해본 적이 없는 우리 현실로서는, 이 책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과격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의 학문적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했던 기존의 학계를 옹기종기 모여 비판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들어보고 싶었지만 거대한 흐름에 밀려 뜻뜻미지근하게 그냥 넘기고 만 우리의 학문적 풍토를 요묘조묘 과감히 그러나 최대한 이성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로 들춰내었다. 조동일은 비판하고 들춰내는 데 만

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론으로서의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학문적 현실은 그의 주장을 심각하게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당위론적인 성격이 강하게 엿보이는 그의 주장이 폭넓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학문의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좀더 구체적인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동일의 『우리 학문의 길』이 흥분된 상태에서 쓰여진 것 같다는 말을 주위에서 여러 차례 들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학문의 지위를 학문체계 내에서보다는 이른바 학문을 한다는 학자들에 대한 비난 어린 비평을 통해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 한 가지는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즉 학문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실제로 그의 책은 이러한 지적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분과학의 논저가 아니며, 각론적 지식의 나열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문적 논쟁보다는 학문의 방향설정에 그 초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그의 책을 대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학문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인문학에 있어서 개별 학자의 학문관은 더욱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조동일은 기성 세대 학자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한다(p. 7). 대학에 몸담고 있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과연 진정한 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다. 대학 교수의 역할은 크게 연구와 교육으로 본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역할을 다하는 교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조동일은 그의 책을 통하여 고쳐져야 할 교수의 범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가) 연구와 교육을 포기하고 대학에서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방식으로 오로지 학교행정에만 매달리는 교수, (나) 교수 인사권을 놓고 학문 외적인 자기 세력만을 확보하려는 교수, (다) 연구는 포기하고 강단교육만을 근근이 해나가는 교수, (라) 연구는 하지만 외국 것을 수입해다 번역만 하고 해석을 포기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보지 못하는 교수, (마) 고전문헌에 매달려 외래의 것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국수적인 교수.

우리 학문의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 위하여 학문의 길을 들어서는 젊은 학자는 최소한 위에서 지적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학문의 진정한 역할

을 다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구차하게 달기에는 우리의 학문 현실이 너무 뒤쳐져 있다. 우리 학계의 위기이며, 넓게는 교육 현실의 위기이다. 더욱이 대학은 다른 집단과 달리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원리와 원칙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학문의 원칙이 학문의 내용을 끌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학문은 (가) 진실을 탐구하는 행위여야 하며, (나) 논리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 실천의 지침인 이론을 마련해야 하고, (라) 독백이 아니고 대화여야 한다고 조동일은 말한다(pp. 16~25). 이는 엄연한 사실이며, 이 사실을 굳히기 위하여 원칙에 대한 당위성을 인위적으로라도 강조해야 한다.

조동일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학문의 세계화와 전문성을 역설한다. 그러한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립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학문의 자립성은 그 학문이 행해지는 토양에 뿌리 내리는 일이다. 엉뚱한 토양에 내린 뿌리는 일시적으로 잎을 가질 수 있으나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만다. 뿌리있는 학문이란 단순히 고증학의 해석이 아니라 학문적 작업 가운데 그 학자의 역사의식이 깃들여 있어야 가능하다. 역사의식은 과거학이 현재학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미래학에 투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시간성만이 아니라 공간성에서도 역사의식이 문제된다. 외국 이론을 수용하되 그것을 우리의 토양 위에서 잘 키워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학문의 실천성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진리탐구는 실천의식과 떨어질 수 없다.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학문의 실천의식이 학문의 진리탐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런 경우 학문을 순수 고전논리학으로 제한하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학문의 실천의식을 마치 산학협동이나 정치참여로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학문에 있어서 실천이란 과거의 구체적인 것에서 보편화된 것을 다시 현재 속에서 구체화시켜 보편성을 체화(體化, Verkörperung)시키는 일이다. 보편성의 체화는 정치사회적인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나 종교 혹은 자연과학이나 예술 그리고 신화나 이데올로기 등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큰 의미의 삶의 영역이며, 여기서 삶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 혹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문의 실천의식은 학문을 살아 있게끔 하는 일이며, 학문의 화석화를 피하려는 기본적인 노력일 뿐이다.

앞선 두 문단에서 말한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조동일이 말한 앞서의 (가)와 (나)는 (다)와 (라)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다)와 (라)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실천성이나 현실성의 단어만 들으면 일어나는 알레르기가 우리의 학문을 얼마나 구름잡는 이

야기로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이제는 그 원인처방을 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수적임을 생각해본다. 이 난제는 우리의 현대 학문이 자립적이지 못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동일은 이 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3세계 학문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한다.

제3세계 학문이론은 특별한 이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제3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학문의 식민주의에서 벗어나 학문의 주체성을 성취하느냐의 문제이다. 제1세계, 즉 서구의 관념론과 사물에 빠진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제2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카리스마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의 학문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조동일은 제3세계의 의미를 학문방법론에 유비시켰다. 이러한 유비는 지나친 단순화를 초래한다. 제3세계는 1, 2세계에 대한 반작용의 역할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반작용적인 학문은 그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또한 제2세계의 핵심이 이데올로기보다는 세계주의에 있다는 점을 그는 놓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제3세계를 말할 때 그 성격은 반드시 세계주의에 반하는 무엇을 함의한다. 이는 그가 원래 앞서 말한 학문의 세계주의의 주장과 모순된다. 그의 제3세계 학문이론의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론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지하는 가능한 모든 오류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서양 전래의 방법론으

로 서양의 학문을 하면서 내가 왜 서양의 학문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었다. 동양에는 학문방법론이 없었다는 어디선가 잘못 유포된 소문에 속거나 혹은 스스로 속기를 자칭해서 학문의 제국주의에 동참하고 있는 사실을 합리화한다. 그러나 그러한 서구의 학문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서구의 학문은 그들의 사상사적 맥락 속에서 동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양의 문을 두들길 뿐이다.

서양에 있어서 동양학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 훨씬 이상이다. 서구의 동양학에 대한 오해는 오해라기보다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사선택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구의 학문은 나름대로 이론에 실천이 따르는 필연적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서구의 학문을 갖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서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 취향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과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반성 없는 학문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정신적 고향에 기여했을 뿐이다. 서구의 학문이 동양의 학문을 연구하고 동양의 엑기스를 뽑아가는 동안 우리는 전통을 버리고 오로지 서구의 학문을 여과없이 설명하고 혹은 가위질 편집에 여념이 없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학문을 찾아나설 때가 되었다. 비판과 반

성을 통해서 외래의 것을 우리 풍토에 맞게 수용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전통학문을 국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계승해나가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수용과 계승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조동일은 그의 책에서 원효가 말한 불침불부(不沈不浮)의 방법을 제시한다. 즉 사물에 빠져 존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혹은 마음에 빠져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론에 멈추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허한 관념이나 불필요한 선입견을 버리고 사실을 그 자체로 바르게 인식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힘쓰면 된다”고 조동일은 말한다(pp. 180~181). 동시에 학문은 실사구시의 객관적 틀을 보여주어야 한다. 조동일은 이에 대하여 “통전이관변동(統轉移貫變動)”을 학문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최한기(1803~1876)의 주장을 들어 더하여 답한다(p. 181). 공간적인 변화인 전이(轉移)와 시간적 변화인 변동(變動)을 통괄해서 있는 불변의 원리<sup>1)</sup>를 실사구시에 덧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사구시와 통전이관변동이 우리 학문의 방법론으로서 조화될 때 비로소 마음을 바르게 하는 학문이 곧 살아가는 데 유익한 학문이 될 것이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 전체의 원리를 찾는 학문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조동일은 말한다(pp. 167~177). 이러한 그의 견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별로 새로운 것이 없으며 1980년 초반부터 계속 반성되어온 주

제였다. 이제는 그 실천의 과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조동일은 『우리 학문의 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당위성을 강도높게 주장한다. 당위성을 말하다 보니 학문의 당위성을 책임지지 못한 기성 학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다. 당연한 비난이겠지만 조동일의 주장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따른다.

제도권 학문에 대한 그의 비판이 강도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비판자 역시 제도권 속에서 그 자신도 모르게 신보수주의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조동일이 말한 우리 것이란 국수적인 형태를 분명히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세계주의자들보다 편파적 국수주의자들이 그보다 한 발 앞서 조동일의 주장을 국수주의자 자신의 것으로 계승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조동일은 학문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전통을 너무 강조해놓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돌아오는 현대 정보사회의 현실을 겨우 피상적으로밖에 보질 못했다. 정보사회가 강화될수록 그 정보사회의 개방성을 회피하는 국수적 전통주의자의 폐쇄성 또한 커지게 된다. 조동일의 책은 이 점에 대하여 답변의 말을 더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인분석 없는 대안이어서 약간은 추상적이다.

동서양 모두는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 종교적 기준이 힘을 잃고 마르크

스주의가 무너지고 뉴턴적인 세계관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중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과거의 것만한 카리스마적인 힘을 갖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일부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반작용으로 나갈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전통으로 돌아가 그 대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학문의 객관성을 내세운 그로서는 당연히 포스트 모더니티는 맞지를 않고 결국 전통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학문을 찾아보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책은 전통의 실체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별로 없다. 단지 실천과 사고의 주체성의 문제를 전통과 연결시켰을 뿐이다. 그의 당위성은 이해되나 그의 학문적 위치로 보아 좀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어야 했다.

그가 말한 사고의 주체성은 제3세계 학문방향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엄밀한 사회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사회가 제3세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의 제3세계권으로부터 신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외부의 비판을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덮어버리고 있다. 물론 한국의 학문적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세계주의를 말하는 김재권 교수나 김상기 교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학문의 현실적 실천성을 완전히 도외시키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를 한다. 앞의 두 교수는 민족주의를 단지 쇼비니즘의 단초로서만 생각하는 듯하다. 오해를 일으키는 민족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세계 보편주의도 현실에 대한 해결의 시도로서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민족주의는 다양주의로 나아가야지 유일주의나 자기 최고주의로 나갈 때 남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화약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전통이 모두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종합을 위한 차별화의 과정으로서 반성된 전통을 말해야 할 것이다.

종합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하자. 동서양이 조화롭게 만나야 하고, 분과학이 종합학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각론에서 벗어나 총론이 문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으나,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선 학문하는 우리의 학자 개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개별 학자간의 유기적 대화를 통해 그 작업을 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물론 그러한 대화를 하는 자세는 총론적 입장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총론을 각론보다 우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따라야 할 일이지만, 각론 없는 총론은 허세일 수 있다. 물론 조동일은 이 점도 강하게 경계하였다. 다만 다양한 분과학을 종합학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개인에게 책임지워 뉘어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양학과 국학을 한 학자가 같이 수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으나 현대의 치열한 전문성의 관문을 뚫어나갈지는 의문이

다. 모든 학자가 조동일과 같은 학문적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문의 유기체적 협동체계가 필요하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조동일은 지칠 줄 모르는 독서력으로 여타 분과학의 예를 많이 들었다. 문학에서 언어학과 일반 서양철학, 한국철학 그리고 과학철학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서양철학은 전체의 맥락과 큰 관계 없이 쓰여진 것 같다. 오히려 그의 전체 맥락과 연관시켜 인문학 가운데 그가 가장 비판해야 할 분과학은 대학에서 연구하는 한국사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사 연구 집단이 서양의 실증주의 방법론을 반성하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반성이 실천으로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사는 다른 분과학과 달리 그런 모순성이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기철학에 대한 해석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쪽 전공자의 일반된 의견이다. 나의 판단을 세울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더 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학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 조동일의 주된 비판내용을 회색시키는 것 같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크게 보아 평슨이도 그의 기본 주장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분과학에 대하여, 특히 기철학에 대한 비판적 지적은 다른 사람, 다른 지면에서 좀더 치열하게 다시 논의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그의 주장이 우리에게 큰 반성

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 반성을 미래에 실제적으로 투영시키기 위해서 학자간의 공동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 공동작업을 위해서 먼저 학문을 핑계로 한 개인의 안위를 버려야 한다. 그 원인을 거슬러올라 찾아보면 과거 우리 학문이

국수주의와 문화적 제국주의에 매몰되어 뛰쳐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원인만을 탓할 수는 없으며 지금의 학문의 현상성 속에서 가려내고 자기 반성하면서 우리 학문의 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 주

---

- 1) 여기서 불변의 원리는 정지(Unmoved Mover)지향적인 서양철학의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